



## 함께라면

무릉중 1-3 김시윤

분홍빛 옷을 입고 바람 따라 흔들거리며 춤추던 꽃잎들이 푸릇푸릇한 색깔의 옷들로 갈아입는 7월이었다. 햇빛도 하늘 위에서 날 녹일 듯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옷장 속 내 옷들도 반팔, 반바지들로 새롭게 채워졌다. 여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었다.

학교에서는 여름 방학식을 했다. 땀이 내 얼굴을 다 덮어도 방학이라는 말은 내 마음을 늘 뛰게 했다. 하지만 방학식을 하고 보내는 시간들은 생각과는 다르게 지루하게 느껴졌다. 왜냐하면 학원에서 방학이라는 이유로 평소보다 약 두 배 정도로 많은 숙제들을 내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잠을 줄이면서까지 꼬박꼬박 숙제를 했다. '숙제를 다 하지 못하면 혼나지 않을까'하는 불안과 걱정은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보다 내 몸을 오히려 혹사시키고 있는 것 같았다. 빨리 방학 숙제라는 스트레스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또한 방학 때 매일 혼자 먹는 밥은 맛있어서 먹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배를 채우기 위해 억지로 깨작깨작 먹는 정도였다. 시간을 보내다 보니 찾아온 배꼽시계는 꼬르륵거리며 음식을 달라고 나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그럼 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물을 끓이고 스프를 넣어서 끓인 작은 컵

라면을 먹었다. 나는 고독했고 더 이상 라면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나에게서는 그저 잠시 동안의 휴식이나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일이 필요했다.

며칠 뒤, 부모님께서 3일 동안 강원도에 가서 물놀이를 하게 되었다고 하셨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방방 뛰었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일이었다. 고독에서 벗어나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것 말이다. 나는 이 소식을 들은 후부터 물놀이 가는 날만을 기다리게 되었다.

“시윤아, 물놀이 가야지.” 비몽사몽인 내 귓가에 들리는 말이었다.

나는 ‘물놀이’라는 말에 벌떡 일어나 아침 일찍부터 강원도로 갈 준비를 했다. 최근 들어서는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강원도로 가면서 함께 노래를 듣기도 하고 휴게소에 들러 간식들을 먹기도 했다. 다시 차 안에 와서는 잠에 들게 되었다. 잠에서 깨어나 창문에 보이는 풍경들은 다 엮서 같이 예쁘고 멋있었다. 그렇게 웃고 떠들고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다.

첫날은 조금 쉬고 둘째 날과 셋째 날에 물놀이를 하기로 했다. 저녁을 먹고 피곤한 몸을 이끌어서 폭신평신했던 침대로 몸을 던졌다.

다음 날 아침, 우리 가족은 분주하게 물놀이할 준비를 했다. 내 마음이 쿵쿵거리며 뛰고 있었다. 나는 신이 났고 그때의 ‘설렘’이라는 감정이 무척 좋았다. ‘숙제’ 생각은 0.1%도 들지 않았다. 수영복을 입고서 물에 들어가는 순간 심장에서만 머물던 설렘과 행복 등의 감정들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지금까지 쌓였던 스트레스와 근심, 걱정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렇게 여러 물놀이 기구들을 타고 즐기다 보니 어느덧 하

늘이 흐려지고 있었다. 나는 아쉬운 마음이었지만 ‘내일도 있으니까’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다시 올리는 내 배꼽시계에 우리 가족들은 무엇을 먹을지 고민했다. 외식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오늘 저녁은 간단히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서 먹기로 했다. 편의점에 들어가자形形色색 다양한 포장지들에 싸인 음식들이 반기고 있었다. 너무 배고파서 이것저것 다 먹고 싶었다. 그런 내 마음을 살짝 넣어 두고서 몇 가지 음식들만 사게 되었다. 우리 가족이 산 음식은 밥과 음료수, 라면이 전부였다. 부모님께서 라면을 끓이셨고 언니와 나는 서로 이야기하며 서로 재미있었던 기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던 중 들리는 “애들아, 라면 먹자.”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에 생쥐처럼 쪼르르 부엌으로 달려갔다. 앞접시에 꼬들꼬들하게 잘 익혀진 면발과 국물을 덜었다. “잘 먹겠습니다!”라는 한마디를 하고서 허겁지겁 먹고 가족들과 대화도 했다.

저녁을 먹으면서까지도 행복한 감정들이 내 몸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내가 방학 때 점심으로 먹던 라면과 같은 라면이었다. 그런데 그때보다 몇 배는 더 맛있게 느껴졌다. 나는 생각했다.

‘함께라서 맛있는 거라고.’

함께 이야기하며 먹는 라면 면발 하나하나에 즐거움과 행복이 느껴졌다. 그런 즐거움과 행복을 함께 나누어 먹으니 즐거움과 행복은 배가 되었다. 숙제에 간혀 살던 삶에서 벗어나 함께 즐겼기에 나의 행복이라는 감정을 마음 깊은 어느 지하방에서 다시 꺼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함께 일을 하고 함께 먹는다는 것, 함께 즐긴다는 것들처럼 혼자라면 그저 그런대로 느껴지지만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더 행복하고 즐겁게 만든다. 나의 정을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의 정을 받는 것들 전부 함께라서 가능한 일이다.

나는 이제야 알게 되었다. 라면과 같은 어떠한 음식, 행동들은 모두 함께해야 더 맛있고 더 즐거워진다는 것을 말이다.

